

키움 박병호, 6년 연속 20홈런 도전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3)가 6년 연속 20홈런을 노린다. 역대 3번째 대기록 도전이다. 박병호는 지난 7월 30일 현재 18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2개의 아치를 추

가하면 2012년부터 이어온 20홈런 기록을 6시즌으로 늘리게 된다. KBO리그 최다연속 시즌 20홈런은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이 1997~2012년(2004~2011년 해외 진출) 달성한 8

이승엽·최형우 이어 역대 3번째 대기록
2012년부터 20홈런 기록 6시즌으로 늘어나

시즌이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2013~2018년 6시즌 연속으로 2번째 기록을 달성했다. 2005년 LG 트윈스에 입단한 박병호는 그해 6월 2일 무등 KIA 타이거즈전에서 솔로포를 터트려 데뷔 홈런을 신고했다. 넥센(현 키움)으로 팀을 옮긴 2011년부터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기 시작해 KBO리그 홈런왕으로 우뚝 섰다.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2016~2017년 해외 진출) 5년 연속 30홈런을 기록 중이다. KBO리그 대표 거포답게 홈런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썼다. 2014~2018년에는 역대 최초로 3시즌 연속 40홈런

을 때려냈다. 2014년 9월 4일 목동 NC 다이노스전에서는 KBO리그 한 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인 4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2홈런, 53홈런을 수확했다. KBO리그에서 한 시즌 50홈런을 넘긴 선수는 박병호를 포함해 이승엽(1999, 2003), 심정수(2003) 등 3명에 불과하다. 박병호는 30일 현재 개인통산 271홈런을 기록 중이다. 역대 13번째 300홈런을 넘어 KBO 리그 홈런왕 이승엽의 467홈런에 도전할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뉴스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19 아우디컵 준결승에서 선발로 나서 후반 21분까지 66분을 소화했다. 토트넘이 1-0으로 이겼다. 손흥민과 예당 아자르가 공을 두고 경쟁 중이다.

‘손흥민 66분’ 토트넘, 아우디컵 레알 마드리드 꺾고 결승 진출

B.뮌헨과 대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의 프레시즌 경기에서 승리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9 아우디컵 준결승에서 선발로 나서 후반 21분까지 66분을 소화했다.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 결에서 왼쪽 측면으로 나선 손흥민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다.

특히 후반 14분 페널티박스 정면 외곽에서 주먹기인 왼발 중거리슛으로 상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골키퍼 나바스의 선방에 걸렸지만 슛의 궤적과 코스에 위협적이었다.

손흥민과 케인만 나란히 66분을 소화한 점이 눈에 띈다. 출전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번 대회는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무대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일환으로 후반 시작과 함께 무려 9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손흥민과 케인은 그대로 뛰게 하다가 후반 중반에 나란히 교체했다. 새 시즌에도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둘의 탄탄한 입지를 엿볼 수 있다.

토트넘은 케인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케인을 최전방에 세우고,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 라멜라에게 2선에서 지원하게 했다.

케인 전방 22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마르셀루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마르셀루가 백패스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케인에게 기회가 갔다. 골키퍼와 맞선 케인은 침착한 오른발슛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골네트를 갈랐다.

토트넘은 1-0으로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골키퍼 요리스, 루카스 모우라, 무사 시소코, 벨리 알리 등 9명을 대거 교체했다.

이틀 연속으로 경기가 열려 로테이션이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손흥민과 케인은 그대로 뛴고, 손흥민은 후반 14분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롭게 웰스에서 합류한 예당 아자르를 비롯해 카림 벤제마, 토니 크로스, 루마 모드리치, 세르히오 마르코 등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했다.

후반 30분 호드리구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실패했다.

한편, 후반 35분 교체 투입된 일본의 18세 공격수 구보 타케후사는 두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다.

토트넘의 결승 상대는 뮌헨 바이에른 뮌헨(독일)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어 벌어진 경기에서 토마스 뮐러의 멀티골 등을 앞세워 페네르바체(터키)에 6-1 대승을 거뒀다. 결승전은 8월 1일 오전 3시 30분에 열린다.

메이저 3승 도전하는 고진영 “일반 대회처럼 여길 것”

오늘 AIG 여자 브리티시 오픈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 대회 3승에 도전하는 고진영(24)이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고진영은 1일 영국 밀턴 케인스에서 개막하는 AIG 여자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450만 달러)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 열리는 다섯 차례의 메이저 대회 가운데 마지막 순서다. 고진영은 앞서 열린 네 개의 대회 가운데 두 개의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냈다.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하며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감

격을 누리는데 이어 29일 끝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쳐 김효주(24)와 평산산(중국), 제니퍼 켈초(미국) 등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2015년 박인비(31)가 FGA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달성한 이후 4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2승을 일궈낸 선수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한 해에만 메이저 3승을 따내는 선수로 자리매김한다.

지금까지 1년에 메이저 3승을 거둔 선수는 1950년 베이브 디트릭슨-자하리아스, 1961년 미키 라이트, 1986년 팻 브래들리 그리고 2013년의 박인비 등 네 명 뿐이다.

고진영은 31일 L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또 우승한다면 대단한 일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웃었다.

“영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를 좋아하면서 브리티시 오픈에 입하는 여유 섞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번 대회를 그저 일반적인 다른 대회처럼 생각하겠다”면서 “게임에서 내 리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잉글랜드 출신으로 이 코스를 잘 알고 있는 캐디 데이비드 브루커에 대해선 “이번 코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NBA 박지수, 시즌 최장 16분51초 활약...팀 3연승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가 이번 시즌 최장 출장 시간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박지수의 소속팀 라스베이거스 에이스는 지난 7월 3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에서 벌어진 2019 WNBA 정규리그 댈러스 워싱턴과 경기에서 86-54, 32점차 대승을 거뒀다.

3연승을 달린 라스베이거스는 14승(6패)을 신고하며 코네티컷 선(14승 6패)과 더불어 공동 1위에 올랐다.

박지수는 16분51초를 뛰며 4점 3어시스트 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16분51초는 이번 시즌 박지수의 출장 시간 가운데 가장 길다.

박지수는 이번 시즌 14경기에 출전해 평균 0.7점 1.6리바운드 0.4어시스트 0.2블록을 기록하고 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미골, 화연사, 설진강, 운주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